

은혜와 진리소식

2026년 8월 23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967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질환과 교통사고로

생사의 기로에 있던

저의 생명을 지켜 주시고,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최 석 중 -

저는 부모님이 불교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집안 어른의 기일이나 명절 때마다 집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 약학대학에 입학하였는데, 교내 동아리 중에 기독교학생회가 있었습니다. 그 동아리에 들어가 활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사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할 때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간 후 한동안 제사를 지내는 날이 되면 회사일로 출장을 간다며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크게 화를 내시고 그날은 조상이 아닌 저의 제삿날처럼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허락을 받기 위해 더 효도하려고 애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시더니, 주일에 교회에 안 가느냐고 물으실 정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마음 편히 교회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양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었었는데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섭리로 대학교 교회에서 교목님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1986년 3월 2일에, 저는 처음 은혜와진리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처남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조용목 목사님께서 심방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일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은혜와진리교회에서 당회장 조용목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마침 제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던 성가대 지휘자님이 저에게 성가대 봉사를 권유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안양성전 실로암 성가대에서 봉사하며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가대에서 봉사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생활의 즐거움, 교회를 섬기는 기쁨을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총무로, 대장으로 성가대를 섬기면서 저의 믿음이 더욱 굳세어졌습니다. 그 후 18년 동안 주일 11시에배에서 예배 전 찬송을 인도하였습니다. 안양성가국의 부국장과 국장의 직임을 맡고서도 변함없이 예배 전 찬송 인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회장 조 목사님을 찾아 뵙고 말씀드렸더니 기도해 주시며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받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위암 3기말 판정을 받고, 그 이튿날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다른 곳에 전이되지 않아 수술이 가능했습니다. 이어서 항암치료를 6차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즐겁게 하고 있던 찬송 인도를 못하는 것이 무척 안타깝고 마음 아팠습니다.

항암치료를 받는 동안 병원에서 주는 식사를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밖에 나가서 조금이나마 입맛이 생기는 음식을 골라서 먹곤 했는데, 3차 항암치료를 받을 때부터는 음식을 먹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토해버렸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면 항암치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하기를 반복하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항암치료를 다 마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항암치료를 받을 때마다 먼저 당회장 조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치료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치유되어 다시 찬송 인도를 하게 되었고 또한 성가연합회에서 부회장의 중책을 맡아 헌신하게 되었으니 더 이상 감사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또 한 번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6시에 동네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천국의 계단’이라는 기구에서 운동을 하는데, 평소에 5분을 운동해도 힘든 줄을 몰랐는데 이날은 운동을 시작한지 2분 30초만에 운동을 지속하기 힘들 정도로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 병원에 가기로 하고, 아침에 운영하는 약국으로 출근하는데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국이 멀지 않아서 그 자리에 차를 세우고, 곧바로 약국 앞에 있는 병원의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심장에 스텐트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습니다.

그 며칠 후인 지난 4월 18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일산에서 가족 모임이 있어 차를 운전하여 가는 도중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생겼는지, 그만 앞차를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옆자리에 아내가 타고 있었는데 우리 두 사람의 좌석에서 모두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충격이 컸고, 그 순간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보험회사에 급히 전화하여 직원을 불러서 차와 함께 사고 현장에서 가까운 시흥시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집이 나고 당황한 아내는 장로회 회장이신 유훈 장로님께 급히 연락을 드렸고, 제가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을 때 달려오신 장로님이 제 곁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심폐소생술 15분 만에 저는 의식을 찾았고, 장로님의 도움으로 안양 한림대병원으로 옮겨져 추가 스텐트 수술을 통해 막힌 혈관을 다시 뚫었다고 합니다.

당회장 조용목 목사님께서 전화로 저에게 신유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의식은 찾았지만 아직 정신이 없어서 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에 저는 그저 “아멘” “아멘”만 했습니다. 조 목사님께서 네 번이나 전화로 기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저는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의견에 따라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재차 정밀 검진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담당 주치의이신 교수님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많이 회복되어 퇴원을 하고, 집에서 식사하고 운동도 하면서 조금씩 더 회복되는 상태에서 드디어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당회장 조 목사님께서 저를 품에 안아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데 제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얼마나 황송하고 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7월 28일이 다시 병원에 가서 심장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피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교수님에게 듣는 날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4월 30일에 받은 검사에서는 심장이 한 번 수축할 때 좌심실에서 방출되는 혈액량을 측정하는 ‘심박출률’이 정상인은 55~70인데 저는 28이었습니다. 수치가 35가 넘지 않으면 부정맥이 생기므로 제세동기라는 기구를 심장에 장착해야 한다고 합니다. 검사받기 하루 전인 27일에 당회장 조 목사님께서 저의 심박출률이 35가 훨씬 넘도록 세심하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검사에서 수치가 44가 되어 제세동기를 달지 않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할렐루야!

이제는 지금까지의 치료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건강관리를 잘해서 빠른 시일에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당회장 조용목 목사님과 사모님, 부당회장 조명제 목사님, 유훈 장로회장님을 비롯한 장로님들과 교역자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가대원들과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구역공과

제4권 (2단원 : 십자가의 도)

(제12과) 사랑의 십자가

- 본문 : 요한일서 4:7-10

• 요절 :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요일 4:9)

• 찬송 : 185장(새찬송가 311장), 404장(새찬송가 304장)

역사상 오늘날처럼 사랑에 대하여 많이 말하는 시대가 없었고, 오늘날처럼 사랑이 희귀한 시대도 드물 것입니다. 마치 곳곳에 물이 넘치지만 정작 마실 물은 귀한 것같이, 입으로 말해지는 사랑은 흔하지만 진실된 행동으로 표현되는 사랑은 만나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일수록 남을 사랑할 줄 모르듯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까닭에 진정한 사랑을 남에게 베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실제로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야말로 진실로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1.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시 51:5)라고 한 다윗의 고백과 같이, 사람은 태어날 적부터 이미 죄성을 지닌 채 태어납니다. 그뿐 아니라 일생동안 죄 가운데서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처한 가련한 운명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결코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자신의 가련한 운명에 대하여 안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깨달음만으로 죄를 없애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안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마땅히 죽어 지옥 형벌에 처해질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케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요일 4:9) 하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되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모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랑을 제 자식에게 베풁니다. 나중에 받을 보상을 계산하고 자식을 양육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많이 닮았습니다. 또한 드문 일이긴 하나 친구를 위해서 제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으며, 혹은 신념이나 이념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흉악한 살인죄를 저지르고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지닌 사랑의 한계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한계를 초월한 사랑이 있으니 곧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나 죄값으로 영벌을 받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감히 필설로 표현할 수 없는 크고 감격스러운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6~8)라고 감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생명을 버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3.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합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라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높아서 도저히 다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 14:15)라고 하였고, 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요 15:12)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는 주 안에서 한 형제 된 성도들을 사랑할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듯이, 내 구역 식구들은 물론 신자들을 사랑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성경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요일 4:12)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 사랑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됨을 깨달아 힘써 형제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험로만 사랑하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도록 합시다.

본디 십자가는 흉악한 죄수를 처형하던 형틀로서 저주와 죽음의 표상이었으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런즉 이 땅에 살 동안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양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031-443-3731~2, 446-9184
- 수원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 3 T.031-225-3731, 234-3732
- 안산 : 경기도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031-486-3731~2
- 과천 :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02-502-3731
- 시흥 : 경기도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031-318-3731~2
- 광명 :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032-507-3731~2
- 부곡 : 경기도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031-462-3731
- 판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02-2632-3731
- 산본 :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032-469-3742
- 부천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032-652-3731~2

- 일산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031-906-3731
- 시화 : 경기도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031-497-3732
- 영통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031-205-3732
- 구리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031-567-3731
- 포일 : 경기도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031-422-9200
- 전원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경기도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031-985-3731~2
- 평택 :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031-662-3731
- 안중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063-225-3731
- 양주 :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늘길 30 T.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 (관동동) T.055-312-3731
- 용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충남로41번길 30 T.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마루들길168 T.031-763-3720
- 남양 : 경기도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041-667-3731
- 울진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 (천천동) T.031-271-3731
- 동탄 : 경기도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055-752-6675
-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041-533-3731